



## 구본영 시장 결국 구속... 천안시정 공백 우려

이필영 부시장 “업무 기강 확립 · 2000여 공직자가 지혜 모아 극복”

그동안 뇌물 수수 의혹을 받아 왔던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결국 구속됐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시장은 구유해성 폭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천안시는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약 2개월여 동안 시장 공백으로 인한 시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구 시장은 구속으로 인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주자였으나 구속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3일 오후 구본영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오후 9시 30분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본영 시장이 이 돈을 대가로 시장 취임 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구본영 시장은 또 김 전 부회장에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본영 시장의 6·13 지방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천안시장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구본영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당선 가

능성이 가장 큰 주자여서 이번 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월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 충남도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일정표에 따라 재선 도전을 조직적으로 준비해 왔다.

충남 천안시는 구본영 시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4일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행정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결재가 필요한 천안지역 주요 시장은 검찰에 기소하기 전까지 이른바 옥중결재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필영 천안시 부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실을 방문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부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백 우려가 되지만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간부회의를 소집해 직원들에게 맡은 바 업무를 다해 줄 것과 함께 각종 민원사무, 현안 사항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며 “업무 기강 확립과 함께 2000여 공직자가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4일 구본영 천안시장(정치자금법위반 혐의)의 구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은 사법권정”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도당은 “구 천안시장이 3일 저녁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면서 “(구 시장의 구속은) 만시지탄이나 사법권정”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붓물처럼 터져 나왔던 갖은 의혹과 논란으로 바람 잘 날 없었던 구 천안시장 4년은 이렇게 처참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재선에 만 골몰하다 천안시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버린 민주당 구본영(號)의 지난 4년은 천안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린 ‘잃어버린 4년’ ‘진인한 흑역사의 4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정치공세’로 매도하며 구 시장을 감싸고 몰았던 민주당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천안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차 강조하지만 충남도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천안시장까지 축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은 충남도민과 천안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자격을 원천적으로 상실했다”면서 “영망진창 행진과 해괴망측한 행위로 망가진 충남도정과 천안시정을 정상화 하고, 훼손되고 상처 입은 도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충남도의 밑그림이 큰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고준일 의장 후보 탈락 반발... 민주당에 재심 강력 요청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탈락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일부 기득권 정치세력의 잔치로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4일 세종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후보 공천심사에서 현재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왔던 당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종시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심사결과가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발표 없이 단수공천을 통해 세종시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고 의장은 “지난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심위 발표에서 적합도 여론조사가 20%이상 차이 날 시, 단수공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달리 경기도는 1위와 2,3위 간 여론조사 격차가 50%이상이고 서울은 26.8%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수공천이 아닌 경선결선투표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다”면서 “세종시는 격차가 크다고 이야기 하지만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 후보선정에 있어서 정당한 원칙과 일관성 없이 어떠한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정치입문을 위해 공천심사와 경선결과에 대하여 청년가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으며, 시 민과 소통하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젊은 정치인들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가산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시장으로 출마하는 저 뿐만 아니라 젊은 시의원 출마에 정치자들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야 할 세종시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하여 기성정치인에 밀려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자원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 세종시에서도 성희롱 및 채용비리와 인사외압 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을 매일같이 언론에서 접하는 상황속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선정 결과에 대해 세종시민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으신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현재 상황과 세종시민의 민심을 더욱 면밀히 살펴(做)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에 세종시장 후보선정에 대한 재심사유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 기자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특구 만든다

산학연 합동추진단 위촉식... 전략적 지문 역할 수행

충남도는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이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 모델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도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추진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특구 조성 추진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은 중부권 산업융합 거점과 차세대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역 대선공약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 2월 28일에는 도와 천안·아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을 맺고 집적지 부지 조성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서서히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강소특구 모델의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소특구 모델의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규제(규제 샌드박스)가 제공되며,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감면 등이 추진된다.

이번에 발표한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특구 조성 추진단은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주민의 여망을 담아내고 과학·산업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창구로 활동하게 된다.

추진단은 충남벤처학회와 충남북부상의, 대학산학연협회, 생산기술연구원,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충남연구원, 충남IT, 산업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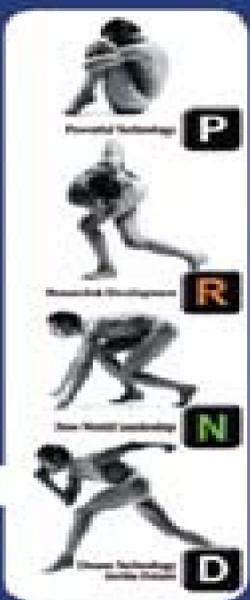
앞으로 추진단은 특구와 관련된 중앙 정책동향과 국내외 사례조사, 도의 여건 등을 분석하고 집적지구 조성 및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또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관련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집적지 내 공공·민간연구소 등 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을 모으게 된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및 특구 지정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충남도의 밑그림이 큰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HYUNDAI  
POWERTECH



##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왔습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은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신뢰를 받고, 두꺼운 엔진 베어링을 누르는 행복한 자동차 운전을 향유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 조삼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디지털교과서의 유해성 사전검증 제기 “충남도 디지털교과서 확대 중단 촉구”



조삼래 <사 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디지털교과서의 유해성 사전검증을 제기하며 충남교육청에 디지털교과서 확대·보급 잠정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성장기의 청소년 신체와 두뇌 발달에 미치는 디지털교과서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이후에 보급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공개질의를 통해 요청했다. 지난 4월 2일, 김상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지철 현 충남교육감은 충남 홍성군 내포초·중학교를 방문해서 문재인정부의 미래교육 핵심과제인 디지털교과서, 소프트웨어 공개수업을 참관했다. 충남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참석 공개수업에서 김지철 현 충남교육감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미래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기기에 청소년이 조기에 노출되고 몰두할수록 교실이나 친구 관계 등 현실에서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뇌구조가 변

형되는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팝콘 브레인은 2011년 6월 23일 미국 CNN 방송에 의해 제기된 용어로서, 전자기기의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지면 현실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실제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전자책(e-book)의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충남교육청의 디지털교과서 및 기기 등의 유해성 검증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영국 BBC는 미국 하버드(Harvard)대학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전자책 등이 청소년의 수면

## 대전 중구선관위, 관내 요양원 등 순회 홍보 실시

다중이용시설 방문... 투표참여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재철)는 (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28일부터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며 (사전)투표참여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 이상민 의원, 이창복 前 보좌관 영입... 기획공보 맡아

이창복 前 보좌관 영입... 기획공보 맡아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4선, 유성읍)은 4일 이창복 <사진> 前 국회보좌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창복씨는 중도일보 기사를 거쳐 국회 보좌관, 계통문화축제 홍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민 의원의 기획공보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19일 대전 시장 출마 선언을 한 후, 지난달 28일 김홍섭 대전광역시정무특보 영입, 지난 1일 100여명 정책자문단 출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정복기자

## 김기태 예비후보, 무소속 청양군의원 출마선언

지난 4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출마기자회견 가져



김기태 예비후보(무소속, 전 넓은마당유치원원장)는 지난 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기태 후보는 "청양의 새로운 비전을 자연과 생태문화에서 찾는 일을 시작할 때"라며 "오랜 유아교육중사 경험과, 생태교육활동을 바탕으로 청양이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군의원의 새로운 위상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저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며 "군의원의 첫번째 책무는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의 통로가 되는 것일 것이며, 둘째는 군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

## 성일종 의원, 의료사고로 억울함을 환자구제 앞장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성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며 지난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례를 접수,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중재원의 업무 태만을 질타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의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은 완화하도록 했다. 서산=김정현기자

## 오세현 예비후보,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발표

경제·문화·관광·농업 등 지역 활성화 공약 발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시장 예비후보가 경제·문화·관광·농업 등 지역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1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4월 4일 두 번째로 발표한 이번 공약은 경제와 문화 및 관광 증진을 통한 아산시 활력 상승에 방점이 찍혔다. 오세현 예비후보 경제 분야 공약의 핵심은 인기 내 5단계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이다. 오 후보는 인기 4년 동안 산업단지 조성, 적극적 기업 유치, 개별인지 조공공장 설립 등 민간부분의 직접 고용 창출을 통해 3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일자리 매칭기능, 기업지원 강화와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20,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이밖에 노인 및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공공부담 일자리 창출로 인기 내 5단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게 오세현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밖에 오세현 예비후보는 민관합동 기업유치 지원단' 구성 및 청년일자리 매칭 기능 강화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유치 업무 패러다임을 기존 관 중심에서 민관협력체제로 전환한다는 대목.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구인구직난 해소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KTX역사 주변 R&D집적지구 조성 지원, 인주 3공구·음봉 디지털·탕정일반 및 서부지역

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확대 및 '기업인문예로 전담팀' 설치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에도 해결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도 약속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성일종 의원, 의료사고로 억울함을 환자구제 앞장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성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며 지난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례를 접수,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중재원의 업무 태만을 질타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의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은 완화하도록 했다. 서산=김정현기자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열어 제197회 공주시의회(의장 윤홍조) 임시회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가 열려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준은)에서는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원안가결 처리했다.

### ‘알리’와 함께하는 ‘쑥쑥’ 선거법 Q&A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 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공식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 법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명 정치인이나 선거구민과 자신의 정책·공약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음하여 SNS나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나?  
-네,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비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우선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전화번호 수집권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경우라면 공식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42) 471-1300  
<제공=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3대 시정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산 만들겠다”

맹정호 서산시장 예비후보 “자치혁신, 행정혁신, 시장혁신”



맹정호 서산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장혁신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자치혁신과 관련해 맹 후보는 “시장의 주인인 시민이 시장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자치혁신의 본질”이라며 “시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혁신의 구체적인 과제로는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대학 운영과 시민동아리 육성,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시민단체 건립, 시민위원회 운영, 민간에게 권한의 위임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1%의 가능성을 찾아 시민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조직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맹 후보는 “1%의 가능성을 찾아 시민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조직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맹 후보는 “1%의 가능성을 찾아 시민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조직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맹 후보는 “1%의 가능성을 찾아 시민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조직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하는 인사정책을 공약했다. 맹 후보자는 시장혁신과 관련해 “가식과 과장, 자기우월주의에서 벗어나 시장부터 혁신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빛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맹 후보자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네 편 내 편으로 시민을 나눠 차별하지 않겠다. 저에게는 시장을 농단할 측근도, 친인척도 없다”며 편을 가르치지 않는 시장을 강조했다. 맹 후보는 현재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환경분야와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정책을 제안 받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선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서산=김정현기자

## 박영순 ‘시민중심’ 1900명 규모 1차 선대위 공식 출범

‘시민이 시장이다’... 선거대책위 명단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를 명단을 발표했다. 4일 공식 출범한 ‘박영순 시민소통 선대위’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선거를 위해 앞서 공개 모집한 1차 시민특보단 1528명을 포함해 모두 1900명 규모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박 후보 선대위는 시민특

보단을 최상위기구로 전면 내세우고, 시민특보단 아래에 선대위원장과 지역조직 및 여성·청년위원회, 부문조직본부 등을 수평적으로 펼친 구조로 짜여졌다. 이는일반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최상위 기구로 두고 그 밑에 본부장과 부본부장, 각종 위원회 및 직능단체 등을 수직적으로 두는 배치와는 다른 점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시민과 대화를 정례화 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는 박 후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선대위를 구성해 여타 후보와 차별화를 뒀다. 일반적인 선대위 틀을 과감히 견여낸 이유는 ‘시민이 시장이다’는 모토로 낮은 자세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는 박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형, 통합형 선대위 구성을 위해 진행한 1528명 모집에 일찍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여기가 뜨거웠다”며 “이러한 장을 최상위 기구로 두고 그 밑에 본부장과 부본부장, 각종 위원회 및 직능단체 등을 수직적으로 두는 배치와는 다른 점이어서 주목

## 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 “천안에 통합관계센터 구축”

재난·사고·범죄로부터 안전한 천안만들겠다 안전 공약



박상돈 <사진>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천안에 시장직속 안전진단기구와 통합관계센터를 구축하겠다고 4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재난·사고·범죄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겠다 위한 안전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수해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 여성·아동범죄, 학교 안전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현재의 안전관리체계로는 천안시민이 온전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뿐이라며,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장직속 안전진단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재난전문 인력을 확보해 행정적응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 대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천안시민이 ‘작년 천안’을 한 군데서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현기자





# 저소득층 자활·자립역량 높인다

## 천안시, 희망키움II·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자립역량강화 교육 실시

천안시는 4일 오후천안체육센터 대강당에서 희망키움통장II·내일키움통장 가입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연금공단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자산 및 신용관리'라는 주제로 통장 가입 가구의 성공적인 자립지원,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적금유지 방법, 상황별

저축방법 등 합리적인 금융 이용방법과 건전한 소비 생활습관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궁급증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시간으로 마련돼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희망키움통장II 사업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 지원하고 3년 후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일하는 저소득

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이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 각 10만 원씩, 참여한 사업단별 내일키움수익금 5~10만 원을 매월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천안시 자활기금으

로 본인 적립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월 38만 원을 적립하면 3년 만기 시 최대 1,36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석범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업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홍호기자

# 벼룩시장 '벚꽃길 한마당' 오는 7일 열려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수익금 기부·사회적 나눔 실천도

한국조폐공사가 오는 7일 오후 12시30분부터 4시까지 화폐박물관(대전 유성구 소재) 광장에서 벚룩시장 '벚꽃길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벚룩시장엔 사전 신청한 128개팀이 참가해 서적, 옷, 장난감, 신발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 사회봉사단체인 '아름다운 가게' 및 '월드비전'과 대전 지역 4개 사회경제적기업, 동구·중구·유성구 지역자활센터, 7개 공방들도 함께 해 감정과 건강식품, 석고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한다.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국크레프트디자인협회는 '나의 희망을 캘리그래피', 토리네작업실은 '머그컵 & 손거울 만들기', 리누공방은 '바다속 메시지 캔들', 봉주르베이킹 & 두부팩토리는 '마카롱 꾸미기' 체험 공방을 운영한다. '동전 쌓기' 게임도 준비돼 있다. 대전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탐사운드의 '하모니카 합주' 초청공연, 대면보의 'K팝 댄스' 공연도 열린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행운권 추첨과 '화폐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 퀴즈를 통해 푸짐한 상품을 제공하고, 여름방학 화폐 제조 공정 현장견학(영북 경산의 기회도 주어진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은 벚룩시장 참가자들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받아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전액 기부, 사회적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는 화폐박물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무료로 개방돼 지역 문화명소 역할을 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벚꽃 시즌에 맞춰 가족들과 함께 벚꽃놀이를 하고, 화폐박물관을 둘러보며 경제 공부도 할 수 있게 매년 벚룩시장을 열고 있다.

송병배기자

# KT&G 전자담배 '릴' 전용담배 '핏(Fiit)' 신제품 2종 출시



신제품 '핏 매치'는 최적의 담배잎 블렌딩을 통해 담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구현했다. 또, '핏 스파키'는 다채로운 경험을 원하는 흡연자를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색다른 맛은 물론 시원한 맛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 2종은 '핏' 패밀리 브랜드 특색으로 디자인의 통일감을 더했고, 담배갑 개봉방식을 기존 슬라이드 타입에서 일반 담배와 같은 상부개폐방식으로 변경했다.

KT&G 임왕섭 제품혁신실장은 "지난 11월에 출시한 '릴'과 '핏' 제품 모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신제품 또한 좋은 반응을 예상하고 있다"며, "향후 공급량 확대는 물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핏 매치'와 '핏 스파키'는 서울지역의 편의점 786개소에서 우선 판매되며, 가격은 각각 4500원이다.

김태선기자



# 햇반 쌀 재배로 '아산 쌀' 발전 선도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은) 쌀 과잉생산과 소비 감소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또한 밥을 사 먹는 시대로 바뀌어 가면서 즉석밥 시장이 확대돼 가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햇반을 제조 판매하는 (주)CJ와 2013년부터 MOU를 체결하고,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보람찬벼를 원활히 재배·납품하며 아산쌀 발전을 선도해 가고 있다.

5년차를 맞이하는 가공용벼 재배의 내실을 기하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와 소득 보전을 위해 4월 3일부터 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가공용벼 계약재배 농업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계약재배 사업 설명 및 고품질 즉석밥용 원료곡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금년도 가공용벼 계약재배는 1060ha 685농가로 우리시 쌀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보전, 국산쌀 소비 확대, 수급안정,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확보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아산시는 <주>CJ, 농협, 계약재배농가 상호간 계약체결을 통한 안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즉석밥용 맞춤형 원료곡 전용가공시설 지원, 가공용벼 수매자금 차입금 이자지원, 수매자재 및 운송비 등 3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한편 기술보급과 서광원 과정은 교육 전 인사를 통해 쌀 생산기반 유지와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3차 재배면적, 질소비료 사용량, 생산비를 줄이기) 3고(밥맛은 좋게, 완전미 비율을 높이고, 쌀 소비를 늘리자) 운동에도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승용이앙기 대여예약추첨 실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는 지난 2일, 영농철을 맞아 적기 모내기 지원을 위해 12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

로 승용이앙기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후 대여예약 추첨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올해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청양군, 소·염소·사슴 등 1만1083두 일제 접종 실시

청양군은 최근 김포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관내 유인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소, 염소, 사슴 등 우제류 1만1083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군은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요원 10명을 동원해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하며 전담공무원이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접종 완료 후 4주가 지난 뒤에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항체 형성률이 소는 80%, 염소는 60% 미만이면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 형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앞서 지난 달 29일에는 돼지 4만 6600두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군은 김포시 구제역 발생 이후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청양가축시장 일시 폐쇄 조치했으며,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농장 간 생축 이동 금지 등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 충남농협 농축산물 직거래 금요장터로 오세요

제철농산물 풍성·도시민 초대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소행)는 봄 시작과 함께 오는 6일 직거래 금요장터(충남충남지역본부·대전 대서동)를 기존대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50여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냉이, 달래, 숙, 취나물 등 봄의 전령사인 봄나물과 딸기, 토마토 등 성철하 농산물이 출하되어 대전 도시민에게 봄의 향기를 전한다.

농협 충남지역본부 금요장터는 1992년 3월에 처음 개장한 이후 25년 전통의 대전 중부권 최고의 직거래 장터로 1961년 충남지역본부가 대전에 동지를 열고 57년만에 충성의 내포신도시로 이전 하였으나 판매농협구현을 위한 신임 조소행 본부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건물 매각전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운영한다며 대전 도시민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조소행 농협충남지역본부장은 "새로 이



전한 내포신도시에도 지역본부 주차장을 이용하여 4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장터'를 개장하여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조기 달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한기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예산군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예산시장 공유재산 매입계획 등 10건의 주요 추진사항



예산군의회(의장 권국상)는 3일 오후 2시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산종합운동장 불령장 건립사업을 비롯해 예산시장 공유재산(점포, 부지) 매입계획 등 10건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으

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전협의의를 진행했다. 권국상 의장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양성업기자

# "어르신, 시원한 여름 나세요!!"

중구 문화2동, 중앙시스템공조 후원... 독거어르신 에어컨 설치



대전 중구 문화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형동)는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벽걸이 에어컨을 후원받았다고 4일 밝혔다. 중앙시스템공조(대표 김경민)에서 천식과 주택 특성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호흡에 힘든 홀몸노인이 있다는 딱한 사정에 귀를 기울여 에어컨을 설치했다. 김경민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

계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2동 관제지는 설치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화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정량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NH농협손해보험 오병관 대표이사

# 대전지역총국 소통 현장 경영 실시



NH농협손해보험 오병관 대표이사는 4일 대전총국을 방문해 전국 지역총국 순회 소통 경영을 이어갔다. 오 대표는 이날 총국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병관 대표이사는 NH농협손해보험의 슬로건인 '헤아림'의 마음가짐으로 농업인과 고객을 배려하고, 자기개발에도 힘써 직원 개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당부한 뒤 행복한 일터,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인직원 모두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직원으로써의 본분인 농업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 및 판매에 매진해 달라 당부했다. 오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6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농협손해보험 지역총국을 방문,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공직자 청렴 자정결의대회 가져 아산시는 3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청렴 자정결의대회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로 전 직원이 함께 청렴을 일상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아산을 만들어가고자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 재난피해자 심리치료, 국가가 나선다

## 2020년까지 권역별 센터 설치... 전국적 재난심리지원 체계 구축

대형 재난을 당한 국민의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 지원에 국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5월 개소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지역별로 재난 위기 대응과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트라우마 전문기사를 양성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올해는 재난 유형별 활동

지침, 심층 사정평가 도구 등을 개발하고 재난 현장에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이동 버스(가정, 안심(安心)버스)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연구원 등 25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포함해 약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금까지 2013년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발족한 심리위기지원단이 대형 재난에 대한 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으나 비상설 조직이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주·포항지진 등 대형 재난을 거치면서 피해자와 국민의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한 국가역할이 강조돼 왔다. 이에 힘입어 국가 트라우마센터 설치에 앞서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새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개소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국회, 유관 기관, 관련 학회 인사들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센터 내에 꾸며진 안심버스 공간에서 스트레스 측정, 전자기장을 이용한 뇌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체험한다. 박능후 장관은 "국가 트라우마센터 시작으로 2020년까지 공주·나주·춘천·부곡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센터를 설치해 전국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공주시, 농번기 들관 민원 배달제 운영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농번기 바쁜 농민들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주는 농번기 들관민원서류 배달제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 농번기 들관민원서류 배달제는 공주시가 지난 2005년 특수시책으로 시행 해 온 제도도 2009년 행정자치부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으로 농사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봄·가을철 농번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농사현장에서 필요한 민원서류 발생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출장 나온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주는 민원편의서비스이다. 최상욱 시민봉사과장은 "들관민원제에 의해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농민들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당진시, '맑은 혈관 교실' 운영

당진 관내 내과병·의원 홍보 동참

당진시 보건소는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당진지역 내과병·의원과 협력해 이달부터 고혈압·당뇨병 케어플랜의 일환으로 '맑은 혈관 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보건소는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더 편한 내과의원 등 관내 12곳의 병·의원을 방문해 병원장과 1:1 면담을 갖고 맑은 혈관 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력에 따라 병·의원은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 약물치료를 항상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관리에 힘쓰기로 했으며, 보건소에서는 환자 1:1 개별 맞춤 건강 상담과 맑은 혈관 교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히 병의원은 치료 중인 만성질환자를 공공기관에 등록·관리토록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돕고

보건소의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홍보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교육 장소도 제공한다. 병·의원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맑은 혈관 교실 1기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보건소 내 시강실에서 진행된다. 4월에는 고혈압에 대해, 그리고 5월에는 당뇨병에 대해 집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만성질환자는 관내 병의원에 내원해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직접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aT '2018 글로벌 K-FOOD FAIR' 국내 참가업체 모집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한국식품의 맛과 멋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환태평양 6개국에서 '2018 글로벌 K-FOOD FAIR'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거래업선과 소비자체험 행

사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5일까지 aT 홈페이지(www.at.or.kr)를 통해 국내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2018 글로벌 K-FOOD FAIR'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거점으로 해당 국

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바이어들을 수출상담회에 초청해 1: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쇼핑몰이나 야외공원 등 소비자 밀집 지역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K-FOOD 체험행사를 개최해 한국의 문화와 식품의 맛을 알릴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 3년 연속 전지훈련지로 대전대 낙점

홍콩펜싱클럽연합팀, 3년 연속 대전대 펜싱부 방문



홍콩 펜싱 클럽 연합팀이 3년 연속 대전대학교를 방문해 화제다. 4일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체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홍콩 클럽 연합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대학 맥센터를 찾았다. 3년 연속 대전대 펜싱부를 방문하고 있는 이들은 평소 도전기 감독의 훈련스타일에 매료됐던 쉰니(Sunny) 코치의 추천에 의해 진행됐다. 총 20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과 함께 입국한 쉰니 코치

는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진행했으며,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전대학교의 선진 훈련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굳은땀을 흘리고 있다. 홍콩 클럽 연합팀의 서니 코치는 "평소 선수들의 가능성을 내다보며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고는 감동적인 훈련 시스템을 존경하고 있다"며 "아울러 선수들에게도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공주시민대학 제42강 교양강좌, 유현준 교수 초청 강연

"만나고 소통하는 도시가 되려면" 주제 강연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오는 10일 저녁 7시 고마 컨벤션홀에서 KBS 명견만리, tvN 어쩌다 어른, 일출신작 2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유현준 교수를 초청, "만나고 소통하는 도시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제42강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유현준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세계적인 도시의 특징과 도시공간속에 숨겨져 있는 인문학의 의미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현준 교수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MIT 건축설계 석사, 하버드대학교 건축설계 석사과정을 졸업, MIT 건축연구소 연구원, 홍익대학

교 건축학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부교수, ㈜유현준건축사무소 대표로 활동 중이다. 한편, 공주시민대학 제43강 교양강좌는 김병후 정신과 원장을 초빙해 '행복해지는 인간관계'라고 그리고 너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오는 5월 8일 저녁 7시 고마 컨벤션홀에서 강연이 예정돼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 한밭대, 창업아이템사업화 신청자 모집 나선다

예비창업팀 및 창업 3년 이하기업의 대표자로 총 18명 선발



국립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송우용)이 최근 '2017년 창업선도대학 성과평가 우수등급'을 획득한 가운데 4월 20일 까지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예비)창업팀 1차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예비창업팀 및 창업 3년 이하기업의 대표자로 총 18명을 선발하며, 선발 시 평균 4,6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창업준비 공간, 회의실 등의 인프라와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받게 된다. 한밭대는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4월 10일 55동 산학협력동관 101호, 13일은 S3동 경상학관 101호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18년도 창업아이템사업화의 참여방법과 유의사항, 평가일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창업아이템사업화 선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을 계획으로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한밭대 또는 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고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밭대 창업지원단(전화 042-828-8663 담당자 김태우 팀장)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과 관련해 송우용 창업지원단장은 "한밭대는 창업 우수대학으로서 창업관련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갖춘 역량이 뛰어난 대학"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역량을 십분 활용해 유망한 창업아이템이나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기업과 함께하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

음봉면 동암1·2리 실개천 주변 나무심기 및 정화활동



아산시, 지난 3일, 음봉면 동암1·2리(중리·동암마을) 실개천 주변 나무심기 및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삼성전재주중앙사업장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며,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실개천 주변에 설죽매 70그루 및 황매화 500주 등을 식재 하고, 실개천 주변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음봉면 동암1리는 2017년도에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실개천을 옛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마을이며, 동암2리 실개천은 동암1리 실개천 하류로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마을이다. 김장덕 환경보전과장은 "농촌마을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개천 마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환경보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산=리광주기자

# 이인제 행정수도 망발... 세종시민단체 '강력 규탄'

## 행정수도 부정 망발 일삼은 것 대해 분노와 상처로 강력 규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4일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행정수도를 반대한 전력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수도를 부정하는 망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인제 후보는 우선 행정수도 망발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간절하게 염원하는 충청도민과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고, 만약 사과할 하지 않고 망발을 지속한다면 충청도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인제 후보는 4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젠테이션에 열린 충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중심도시로서는 미래가 없다. 거기에 첨단과학기술 역량과 대학 중심의 학문 역량, 이것을 지원하는 첨단 금융 역량이 융합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충청권 전체에 기여하는 바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세종시도 우리 도 안에 있는 것 아니냐? 별도의 특별자치시로 만든 것에 대해 크게 찬성하지 않는다"며 "제도적으로도 하나의 광역단체로 돼 있지

만 사실상 충남의 하나다. 거기가 잘 돼야만 충남이 잘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으로 인해 실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마저 백지화될 위기를 처절하게 경험한 바 있고, 세종시 수정안 표결 찬성 의원 105명 명단에 당시 이인제 의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충청도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달면 과거의 전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충남도지사를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수도를 부정하고 충청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은 공직 후보로서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후보는 정병 과거의 망령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인물이라는 것을 과신하고 자처하는 것인지 한편으론 측은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면서 "이 후보는 입말의 양식과 양식이 있다면 행정수도 망발에 대해 충청도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속 망발을 일삼는다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일만 남았음을 강력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당진소방서,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우수관서 선정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가 매년 겨울철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충청남도 소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에서 3위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충남'이라는 비전과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로 시작된 겨울철소방안전대책은 총 4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 추진과제 나뉜다.

당진소방서는 ▲대국민 119 안전운용 전개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추진에 전력을 다해온 결과 5년 평균 화재 발생 저감률이 동절기 대비 80.4건에서 68건, 인명피해 저감률은 2.6명에서 1명 감소 등의 예방대책 성과를 얻어내었다.

당진=최근수기자



**김영배 천안동남경찰서장, 백석대서 특강 후 특강비장 학금 기탁**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4월 3일 교내 본부동 강의실에서 천안동남경찰서 김영배 서장을 초청해 경찰학부 재학생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김 서장은 '존경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공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버스광고 제작** 공주고등학교(교장 조충식) 학생들이 작년부터 실시한 모금하여 제작한 평화의 소녀상 얼굴이 담긴 노란색 광고가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실려 이를 보는 공주시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WITH US' 봉사단, 들봄과 봉사로 동네를 향기롭게 하자** 대전 대덕구 법2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재근)와 정리수남 봉사단 'WITH US (대표 유정애)가 지난 3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세대방문해 깔끔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정리수남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산소방서, 지하층 건축물 현장적응 소방훈련**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운)는 5월 말까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층건축물에 대한 현장적응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아산시, 찾아가는 학생들 안전교육 실시** 아산시는 지난 2일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아산고 체육관(태경관)에서 학생 및 교사 6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문화운동과 생활안전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는 학생들이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하여 5-6명이 그룹을 지어 무재해 구호를 외치며 실습 및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내고장 안전지킴이'로 활약**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산불 및 입야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화재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 총력무전 활약하며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예산군 내 총 8개 대가 조직·운영되고 있다.

## 금강청 "학교로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 교육" 실시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권 인근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 이하 금강환경청)은 4월 4일 대산중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이하 대산산업단지)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권 인근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대피 요령 등을 안내하여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역할, 현장 측정분석차량 등을 소개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대산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화톳말, 롯데케미칼, 엔지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산단 조성 30년이 된 곳으로 최근 벤젠 누출 사고 및 플레어 스택(flare stack) 이상가동 등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환경청에서는 그동안 진행 하였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취급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산단 인근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 보호

복 착용 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생활속의 화학물질,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의 실시간 분석기법 소개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교육으로 학생들의 화학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산산단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소개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구성 : 환경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화학구조팀(소방청),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팀(충남도, 서산시) 등 5개팀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대응협의기관 박봉관기자

##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 선거 분위기 '후끈'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1차 공개토론회 개최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제1차 공개토론회'가 4일 오후 1시 한밭대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밭대 교직원

과 학생, 동문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인 가운데 유병로 교수(기호1), 최병국 교수(기호2), 김명수 교수(기호3), 이재홍 교수(기호4), 김양순 교수(기호5) 등 5명의 후보자 간에 토론이 이뤄

졌다. 토론은 공토질의 3개와 대학구성원들로부터 사전 접수한 각 후보자에 대한 질의 3개 등 총 6개의 질의에 대해 후보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밭대는 4월 12일 선거에 앞서 한 차례의 후보자 공개토론회가 더 예정돼 있으며 합동 연설회도 개최한다. 2차 토론회는 오는 10일(화) 오후 1시부터 한밭대 아트홀에서 개최되며, 각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상호토론으로 진행된다.

합동 연설회는 선거 당일인 4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한밭대 아트홀에서 열려 후보자별로 소견발표회를 하게 되고, 이후 12시 30분부터는 투표가 이뤄진다.

이정복기자

## 천안시장 구축 등 충남 위기상황 전략적 선택 할 때

북기왕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계통시 당원들과 만나



북기왕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4일, 계통시 당원들과 만나 자리에서 "충남 지역은 현재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충남 정치인들의 역할 분담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북 예비후보는 "어제 구분영 천안시장이 구축되어 천안이 흔들리고 있다. 천안에 자유한국당의 길

영한 전 KBS 사장과 이완구 전 총리가 나오려고 한다. 민주당을 지켜야 하는데 천안 갑에 이어 천안 병까지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는데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당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갑과 천안병에서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자유한국당이 천안에서부터 총력으

로 집중해 충남의 지방선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비슷해 양승조 의원이나 저북기왕이나 둘 다 본선 경쟁력은 충분하다"며, "양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에서 활약하고 저는 자치분권 전문가로서 충남에서 활약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충남도민들도 과거와 미래의 대결에서 문재인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개헌 성사 등 국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한 명의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닌 민주당의 승리가 문재인 정부의 승리가 돼야하기에 선당후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산=리량주기자



## "재난대응 역량 키워 '나와 우리' 지켜요"

충남도, 초동대처능력 기르기 위한 교육 실시

충남도가 재난·안전 분야 민간협력단체와 도민을 대상으로 실제 위기상황에서의 초동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재난대응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민간협력단체 소속 도민의 위기대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및 화상·골절 시 응급처치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 교육 내용은 ▲열·화학·전기화상, 염좌·골절·탈구, 기타 별 쓰임 등 교상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실습 ▲인공

호흡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법 등이다.

교육 일정은 오는 26일 보령시청을 시작으로 도내를 총 7개 권역으로 나눠 5월 서산, 6월 공주, 7·8월 천안(2회), 9월 계룡, 10월 홍성, 11월 당진 순으로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연명, 주소지 등에 상관없이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재난대응과 ☎ 041-635-3284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김정환기자

## 서천소방서, 안전산행 주의 당부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여 등산객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산악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악사고의 대부분은 자신의 몸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이 원인으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건강상태 확인과 자신에게 맞는 산행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행 중 보온을 위한 여벌옷과 등산용 등 준비하고 지반이 약한 곳은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서천=김태성기자

## 안전점검의 날 무재해1배 달성 인증

건설업 추락 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는 4월 제 26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계룡건설산업(주) 세종시 4-1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무재해 1배 달성 인증서 수여 및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계룡건설산업(주) 세종시 4-1 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신축현

장에 대해 무재해 1배(910000시간, 2017년 5월14일 ~ 2018년 3월 16일) 인증서 및 유공자안전차장 김주복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원순 본부장은 "건설재해 주원인인 추락사고 예방과 건설기계·장비 및 위험 기구류 관리의 강화"를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 “구직자 4명 중 1명 “취업 징크스 있다”

## <사람인>조사결과... 가장 신경 쓰이는 징크스 1위 ‘첫 질문 징크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주변의 현상이나 징조가 원인이 되어 중요한 일을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보통 ‘징크스’라 불리는 이러한 현상에 ‘취업’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앞둔 구직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구직자 1,502명을 대상으로 ‘취업 징크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1%가 ‘취업 징크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신경 쓰이는 징크스 1위로는 ▲ 첫 질문부터 막히면 불합격할 것 같은

‘첫 질문 징크스’(57%, 복수응답)가 꼽혔다. 이어 ▲이유 없이 물건 등이 떨어지거나 깨지면 불합격할 것 같은 ‘낙하 징크스’(28.7%), ▲버스·지하철 등을 놓치면 운이 안 좋을 것 같은 ‘대중교통 징크스’(24.1%), ▲악몽을 꾸면 운이 안 좋을 것 같은 ‘꿈 징크스’(20.9%), ▲비는 등 날씨에 따라 운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날씨 징크스’(20.6%) 등이 있었다.

취업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66.6%는 취업실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취업 징크스가 신경 쓰이는 시점도 평균적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지 4개월이

지난 후부터였다.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취업 준비가 불안감을 증폭 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 징크스를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컨트롤을 한다’(61.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다른 생각이나 일에 집중한다’(29.5%), ‘징크스 상황을 의식적으로 피한다’(23.1%), ‘행운이 오는 다른 상황을 생각한다’(13.5%) 등을 선택했다.

‘징크스’에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통설이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심리적인 변화를 크게 느끼고 있을까?

징크스 여부에 관계 없이 취업준비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는 응답자가 68.1%로, 구직자 10명 중 7명이 상당한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들은 변화된 점으로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초조함에 시달린다’(35.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아졌다’(25.9%), ‘아무 의욕 없이 무기력해졌다’(15.9%),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15.2%),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5.7%), ‘대인기피증이 생겼다’(1.9%) 순으로 답했다.

이정복기자

#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전 직원 참여... 선거 관련 규정 철저 준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4월 3일 오후 2시 제 1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선거 개입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실시했다.

문일규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자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선거일정에 따라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깨끗하고 투명한 제7회 지방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논산=김태성기자



홍성교육지원청 ‘201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제1차 협의회 개최’



## ‘석송 창의·융합 페스티벌’ 행사 개최

4월 과학의 달 맞아...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신장교육 위해

석송초등학교(교장 김영걸)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해 ‘석송 창의·융합 페스티벌’을 운영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소집을 개발하고, 창의·융합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자신의 기량을 펼쳐 미래과학기술 인력 육성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장이 되었다.

1-3학년 학생들은 과학그림 그리기

와 종이헬리콥터 만들기 체험을 하며 과학과 발명의 원리에 흥미를 다졌고, 4-6학년 학생들은 스피드 진동기 만들기, 에어로켓 만들기 등의 분야에 참여해 숨어있는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했다. 특히, 스피드 진동기·에어로켓 만들기는 모둠을 구성해 제작하고 경연을 실시함으로써 발명욕을 고취시키고 흥미로운 경쟁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소통하고 확산하는 모습에서 석송초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공주=정상범기자



## 당진 서야중, 학부모 진로진학 토론타당

당진 서야중학교(교장 단현순)는 지난 3일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토론타당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진로교육 및 고입, 대입 입시제도의 이해와 전략’을 주제로 박하경(천안 월봉고 교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부모의 준비와 고입과 대입과 관련한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 솔직한 대화가

이였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박재현 진로진학 부장은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교류 및 학부모간의 자녀교육에 대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야중학교는 자유학년제를 맞아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학교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한 조치 강화

대전교육청, 학생 안전 최우선...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대책 마련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서울 모 초등학교 외부인 난입 사건 등과 관련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중요 사항은 학교장이 지정한 시간학교 일과시간에는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지정된 장소(경비실, 행정실 등에서 출입증을 발급·패용한 자만 출입을 허용, 등·하교 등을 위한 학교 출입문 개방 시 반드시 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 교직원 등을 배치, 학생들에게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교내 대응시스템을 구축,

대규모 행사로 출입증 발급절차 생략 시 지역경찰서와 연계 등 안전대책 마련, 학교내 무단 출입자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이 다.

또한, 각급 학교에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이행을 철저히 하고, 학교내 무단 출입자 발견 시 즉시 출입증 교부 안내 및 불응 시 퇴거 요청, 학교장의 퇴거 요청에 불응 시 112 및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신고로 경찰 지원을 받는 등 무단 출입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세종시교육청 ‘2018 수학여행 지원단’ 회의

수학여행 지원 컨설팅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 수학여행 정착 위해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3일 세종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우수 프로그램 개발·발굴과 수학여행 지원 컨설팅을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정착을 위한 「2018학년도 수학여행 지원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수학여행 지원단」은 세종시교육청 소속당연직 위원 4인 외에 다년간 수학여행 업무를 담당해온 교사·교감 등 6명의 교원위원과 시설팀·교통·계약·청소년활동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4인 등 총 14명

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역할로는 ▲관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자료 ▲단위 학교에 대한 수학여행 컨설팅 ▲소규모·테마형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학생 150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수학여행, 국외 수학여행, 특수학교의 수학여행은 의무적으로 「수학여행 지원단」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되며, 그 외에도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정복기자

## 자유학년·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사전협의회

금산교육지원청, 아이들 위한 교사들의 아이디어뱅크 형성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4일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년제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역특화 2018 자유학년제·진로직업체험의 날(꿈틀의 날) 운영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담당교사·장학사 총 18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학생들이 더욱 내실있는

자유학년제·진로직업체험의 날을 통해 수준높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에 교육장 이희천은 “6월 실시된 ‘꿈틀의 날’ 뿐 아니라, 우리 금산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 아산시, 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수업 지원

전국 최초... 올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9개교 진행 예정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의 「그림책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수업」을 지원한다. 올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9개 초등학교 20학급에 학급당 8시간(2시간 4회)씩 인문학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학생들에게 독서·놀이·창의 체험 활동이 중요하지만 정작 학교현장에서는 고품질의 인문학수업이 부족한 실정이며,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미리 그림책을 읽고, 작가와 함께 그림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학교수업과 연계된 미술, 연극, 자연탐구활동, 책 만들기 등이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인문학수

업을 체험하게 된다.

그림책 ‘강아지똥’을 그린 정승각 작가가 ‘숲 속 재봉사’의 최향량 작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그림책작가 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은 올 2월에 전국 최초로 그림책작가협회와 MOU 체결하고, 우수 콘텐츠를 보유한 베스트셀러 작가를 추천받았다. 교육지원담당관은 3월에 지원학교를 선정했고 강사비와 재료비 4천만원을 지원한다.

오원근 교육지원담당관은 “그림책작가의 인문학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랑주기자

## ‘2018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운영

태안도서관, 드림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2명 대상으로



태안교육지원청 태안도서관(관장 정선경)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는 ‘2018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일부터 드림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2명을 대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드림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화구연 및 도서관 견학, 회화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병행하여 아이들에게 독서흥미를 부여하고, 아이들의 독서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독서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9월까지 매주 화요일 24회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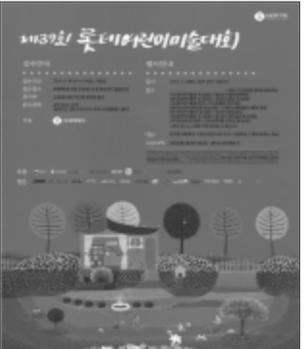
태안도서관은 이번 ‘2018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통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다양한 독서의 기회를 얻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태안도서관(041-674-1369, 675-73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 롯데백화점 ‘롯데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대전오월드, 롯데아울렛 부여점 옥상공원에서 오는 29일 개최



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제39회 롯데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대전충청지역 대회장소는 ‘대전 오월드’와 ‘롯데아울렛 부여점 옥상공원’

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접수는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롯데영플리자 청주점, 롯데아울렛 청주점, 롯데아울렛 부여점에서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롯데 어린이 미술대회는 만4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참여 가능하고,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부(만4세~초3)와 초등학교 고학년부(초4~초6)로 나누어 접수와 시상이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미술협회, 환경재단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롯데 어린이 미술대회’에서는 대상 1명에게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총 619명에게 65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회 참가비는 1인당 3000원으로 환경보호와 아동복지 관련 기금으로 전액 기부할 예정이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김덕기 작가 콜라보 돗자리를 대회 당일 증정한다. 송병배기자

● 특 정 ●

안전한 등갓길 캠페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5일 오전 7시 45분에 청양가남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안전한 등갓길 캠페인', 오후 6시 30분에 호서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진로진학토론타당'에 참여.

# 충남도 신개념 농공단지 만든다

##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체험이나 관광 등 한 자리에... "지역-기업 상생 충남형 모델 조성"

충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고, 체험이나 관광 등을 한 자리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공단지 조성에 본격 나선다.

한 가운데, '6차산업형 시범 농공단지 특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런 연구용역은 △6차산업형 농공단지 이론적 검토 △서천김가공특화단지 운영 실태 및 현황 분석 △6차산업형 시범 농공단지 특화 프로그램 발굴 △6차산업형 농공단지 확산 방안 도출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이들 위해 도는 지난 2016년 추진 계획을 내놓은 뒤, 지난해 서천김가공특화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세종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의 가치와 기능 체계적 전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수산과 정부청사 옥상정원 등에서 시민들에게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가림수풀생태환경연구소(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관)가 위탁을 받아, 학교 교육과정(교과과정, 자유학기제)과 연계한 프로그램, 소외계층·가족단위 가공·체험·지역관광과 연계함으로써 서천군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추진 계획 설명과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 제20회 4·3 독립만세 운동 기념행사

예산군 독립만세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한내장 독립만세 운동 당시를 재현하는 '제20회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3일 고덕면 한내장터 일원에서 열렸다.

한내장 4·3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 회복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학생 등 1100여명이 참석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했다.

행사는 고덕면사무소에서 대의사까지 보부상, 사물놀이패의 공연과 고덕중학교 학생,

2, 4째 주 토요일 제천·방죽천에서 '가족숲'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숲해설 프로그램 예약안내배너(정부청사 옥상정원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이용을 통해, 전화 041-220-1111부터 당월 이용일 전일까지 선착순예약·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림수풀생태환경연구소(010-8554-1223) 또는 SNS(카카오톡 ID: shintown)로 문의하면 된다.

손권배 환경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숲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수준 높은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예산군 지원 공모사업 선정

예산군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41개 단체가 응모해 사업의 타당성, 전문성 및 수행능력,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면접을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예산군을 비롯한 26개 단체가 선정돼 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군은 2019년 하반기 개관 목표로 덕산면 일원에 조성중인 보부상촌과 연계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포보부상촌 밤마실 문화 저자거리'라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제안했다.

사단법인 예덕상무사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인 사업은 보부상을 바탕으로 융합 프로그램으로, 군은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권제고 및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행사로 충남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의 성장시켜나갈 예정이다.

'내포보부상촌 밤마실 문화저자거리'는 6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덕산온천관광지에서 마당극, 뮤지컬퍼포먼스, 영화제, 할로윈데이 호박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총 5회 진행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부상문화가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이 민관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문화가 있는 곳, 즐거운 곳, 낭만이 있는 곳으로 기억되는 명품문화도시 예산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세종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 9~20일 접수, 15대 선정... 1대 500만원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할 때 구입비를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제공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 차량(어린이 통학용) 15

대가 대상이며, 폐차수출합소 포함 후 같은 용도로 LPG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얻은 자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방문 접수하며, 차량제작일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된다.

이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또 직영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시설의 통학차량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또는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044-300-4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 홍성군·홍성유치원교사연합회·홍성군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 숲 체험 운영 업무협약 체결

홍성군은 지난 3일 홍성유치원교사연합회, 홍성군어린이집연합회와 숲 체험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이 숲이라는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직접 만지고, 듣고, 느끼는 등의 오감체험을 통하여 감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군은 관내 어린이

들에게 정기적으로 숲 체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올해 11월까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숲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를 주제로 계절별 숲속 식물 변화, 곤충의 생태 관찰, 곤충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숲 체험 교육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숲해설 분야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에서 선정된 관내 산림복지 전문업체 '내포 숲이야기'에 위탁 운영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휴양 및 산림치유 등 숲을 통한 산림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숲 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만들고 숲과 더불어 나아가는 건강한 환경 가치관을 키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만 4세부터 성인까지 숲 체험 교육에 관심 있는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무료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전에 메일 및 유선접수를 통해 일정과 장소 협의의 후 참여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 충남장조경제혁신센터

# '농수산물' 해외시장 진출 돕는다

최근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 식품산업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충남장조경제혁신센터가 유망 농수산물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충남장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우, 이하 충남센터)는 3일 전북장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 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식품제조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제1회 식품분야 전문무역상사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전북 지역 식품제조기업 33개

사와 국내 전문무역상사 11개사가 참가하여 1대1 수출 상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내 농수산물업체 해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센터 중 충남센터에 유일하게 설치된 무역지원실 주도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문무역상사 매칭데이'를 통해 유망창업·중소기업 228개사가 전문무역상사 52개사와 만나 485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유망 농수산물 업체들이

처음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병우 센터장은 "충남센터는 전국 19개 센터의 수출지원 허브로서 무역지원실을 운영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KOITA, (주)한화무역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042)538-3030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129(충명동) 우정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hite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동네

# 공동주택 37개 단지 최대 3천만원 지원

## 천안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자 선정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37개 단지에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이다.

시는 예년보다 대폭 확대된 37개 단지에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최근 열린 천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마쳤다. 선정된 단지는 올 연말까지 ▲옥상방수와 외벽도색 등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공사 ▲CCTV 및 LED전등 설치 ▲보도블럭 및 울타리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 60%가 넘는 천안시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영 건축과장은 "천안시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235개 단지에 공용 시설 개선을 지원했으며 공용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천안=이종호기자

## 계룡시 유망한 투자기업 유치 총력

###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 다각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계룡시(시장 최홍목)가 기업유치에 골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달 22일 ㈜인플러스, ㈜경원아미늄 등 7개 기업으로부터 39억 원대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투자협약을 체결해 334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달부터 계룡 제2산업단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 충북, 세종 등 투자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시의 투자환경을 적극 알리고 투자 예정기업에는 투자가능 부지 매칭, 각종 지원정책 설명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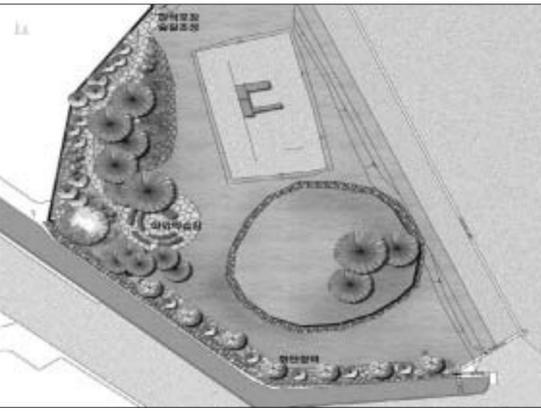
더불어 충남권 주요 산업단지 관리 기관을 직접 방문해 계룡 제2산업단지를 홍보하고, 투자유치 정보 수집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업 관련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계룡시의 산업단지를 알리고 인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홍보물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잠재적 투자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계룡 제2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조성된 산업단지로 현재 2개 기업 입주와 9개 기업의 투자협약을 통해 50.3%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 학교 내 자연친화적 학습 공간 '명상숲' 조성 추진

### 서천군-화양초등학교 업무 협약 체결... 학교 내 녹색쉼터 마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4일 군청 집무실에서 화양초등학교와 '2018년 명상 숲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특히, 두 기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과 서천군이

총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환경의식을 배양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명상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도비 포함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 화양초등학교내 950㎡의 면적에 녹색 쉼터 및 자연친화적인 학습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4일 화양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서천군은 명상 숲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화양초등학교는 명상 숲 조성 후 수목 등 식물과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 논산 옛길 걷기 행사 열려

### 논산문화원, 14일 관측사 출발 연무여중까지

논산문화원(원장 류제환)은 4월 14일(토), '논산 옛길 걷기 3'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논산 옛길 걷기 3'는 지역사찰을 알고 문화를 체험하며 시민의 정체성은 물론 애향심과 자긍심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행사는 논산문화원 다목적홀에서 '논산 옛길의 역사적 의미와 이해'에 관한 특강 후 진행된다.

관측사 주차장을 출발해 건양대-은진면 교촌리-은진향교-은진초까지 걷은 후, 오후에 은진면 시묘4리 연무여중까지 걷는 일정으로 총 9km이며, 오전·오후·종일 코스 중 선택하면 된다.

논산 옛길 걷기 행사는 논산문화원에서 발간한 '옛길과 그 문화'를 통해 고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했으며, 춘향전 판소리 공연, 충무공 이순신 관련 OX퀴즈대회 등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4월 13일(금)까지 논산문화원으로 사전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문화원(041-732-2395)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개인도사막 지팡이, 정소내 참가자는 환경정화 등에 참여하면 봉사 확인서가 발급된다.

##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 주민 주도 건강협의체 설치·기능 등 근거 규정 마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월 30일 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논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주민 주도

다.

복지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6년 5월 개소, 주민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실천의지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과 운동, 영양분야 등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지표에 맞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다.

센터는 개소 후 인근 13개동 원도심 지역주민 800명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을 1:1 조사를 통해

논산=김태선기자

## 봄꽃에 매력 '흠뻑' 취해보세요

### 천안시, 자체 육묘한 봄꽃을 심어 봄맞이 거리 단장



천안시가 시민들이 봄을 느끼고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거리 꽃단장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자체 양묘장에서 직접 기른 금잔화, 팬지, 금어초, 패랭이 등 11만 본을 주요 도로변과 읍면동에 설치된 500여 개의 화분과 가로화단에 심어 화사한 봄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2018 농기계 자재 박람회'와 '흥터병축축제'가 예정된 삼거리 공원 일원 등 행사장 주변을 비롯한 시가지 환경개선에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여기에 필요한 총 13만 본 꽃을 자체 생산해 예산을 절감했다.

유재풍 공원관리과장은 "봄철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천안 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천안=이종호기자

## 부여군 5급이상 간부공무원 '자기변화혁신 워크숍' 열려



## 서천군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충남도에 실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충남도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유재산의 가치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도 등을 평가해 포상금과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 비율을 차등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대부수입, 변상금, 매각 수입증대와 위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관심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서천군은 각 분야에 고루 좋은 점수를 얻어 포상금 1천만 원과 올해 매각수입의 27.5%를 귀속받을 예정이다.

특히, 서천군은 지난해 절저한

### 동정

####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노박래 서천군수= 5일 오전10시 시초면 신곡리에서 열리는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

#### 식목일 행사

이종우 부여군수= 5일 오전10시30분 장암면 석동리에서 열리는 식목일 행사에 참석.

### 계룡시 천마정에 경관조명 설치

#### 이간 경관조명 설치 통해 멋진 볼거리 제공

계룡시(시장 최홍목)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한 곳인 천마정이 아름다운 이간 경관조명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

시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천마정에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밤에 볼 수 있는 천마정의 또 다른 매력과 아름다움을 선보이게 된다.

천마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등산객의 쉼터이자 계룡시 금암동 신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 좋은 정자다.

일몰 후 6시간 동안 천마정을 비추는 조명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서정적인 빛으로 생기 있고 역동적인 조명으로 한층 멋을 더해줬다.

여기에 모든 전등은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생태 환경을 고려, 친환경 에너지 절약 LED조명으로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천마정에 태양광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게 됐다"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린 밤 하늘 천마정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D/B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등 개인별 건강문제를 찾아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에 맞는 보건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반구축, 특화사업, 기본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운영하는 등 지역수준에 맞는 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현재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지역자원 협력 등 3가지 운영 원리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 건강동아리 12개팀 2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논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건강지킴이 협의체 운영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했다.

특별히 이번 자기변화혁신 워크숍은 소통과 참여, 책임과 신뢰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맞춤형 교육으로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우 부여군수는 "이번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지난 2~3월 운영했던 7급이하 직원 워크숍의 연장선"이라며 "체계적인 공직자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부여군 전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에서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부여시장(5일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5일부터 직접 찾아가는 '부여시장(5일장) 건강관리'를 운영한다.

2013년도 시작해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지난해 총 26회 400여명이 참여했고, 그 중 김○○씨는 "의뢰기관을 직접 찾아가도 시장에서 손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장도 보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건강관리팀은 간호사, 금연상담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됐으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정신건강상담, 금연, 치매상담 등도 병행 실시한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군민들 스스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장환 보건소장은 "부여시장(5일장)에서 생업에 바쁜 시장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통정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오시덕 공주시장은 5일 오후 3시 소학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

상반기 민방위 교육



김동일 보령시장은 5일 오전 9시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상반기 민방위 교육, 오전 10시 40분 화암서원에서 열리는 춘계 석전대제, 오후 6시 대전4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대전4동 자율방범대장이취임식 참석.

서남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해미면 활락리 263-12번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 오후 3시 서남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서남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 오후 3시 30분 서산장작예술촌에서 열리는 서산장작예술촌 강범석 초대 전시회 오픈식에 참석, 오후 5시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택시업계 간담회에 참석.

특수교사 연수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5일 오후 3시 20분부터 공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도 특수교사 연수'에 참석.

daejeontoday.com

서산6쪽마늘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 등서 높은 점수 받아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서산6쪽마늘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식품 브랜드 부문의 최고 자리에 우뚝 섰다.

서산시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서산6쪽마늘이 농식품 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와 서산6쪽마늘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우상명)은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로부터 대상 트로피와 상장을 받았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산업·지역부문을 브랜드로 다면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

서산6쪽마늘은 전국 마늘브랜드의 NCI(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분석과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브랜드



인지도와 만족도 및 충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서산6쪽마늘축제 개최를 통해 브랜드 부활과 세계화를 알리는 등 브랜드 가치 향상과 해외 수출을 위한 노력이 전문가 평가에 크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서산6쪽마늘은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좋고 항균작용을 하는 알리신(allicin) 함량이 많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서산지역에서는 2,800여 농가가 40ha의 면적에서 3,600톤의 6쪽

마늘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는 고부가가치 창출 등 명품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구본봉 부시장은 "지난 몇 년간 브랜드 정체성이 유지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수상을 통해 옛 명성을 확실하게 찾았다."며 "서산6쪽마늘이 최고 자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브랜드 대상은 서산생강한과가 2014년부터 4년간 수상했으며 2016년도에는 서산시 통합브랜드가, 지난해에는 서산우리한우가 대상을 받기도 했다.

서산=김정환 기자

서산해미읍성 전통문화공연

올해도 풍성... 7일부터 열려

조선시대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서산 해미읍성에서 올해도 신명나는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서산시는 서산 해미읍성 전통문화공연이 오는 7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27개 분야 16팀이 참가하는 이 전통문화공연은 서산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공연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을 비롯해 줄타기, 퓨전국악, 풍물굿, 궁중무용 등이 있다.

서산빨바람, 무궁화예술단, 서산청춘합배 등 지역 예술인의 공연도 진행된다. 자세한 공연일정은 시와 문화시설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옛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통주막과 전통방식으로 제작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전통찻집은 물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상시 준비돼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이준우 서산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해미읍성이 전국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서산 해미읍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문화 공연을 관람하며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 기자

우리/동네

2018비단고을 산꽃축제 14일로 변경

개화시기 맞춰 일주일 앞당겨



최근 고온현상으로 군북면 보곡산골의 산벚꽃이 일찍 꽃피움을 피우면서 금산군은 발 빠르게 개화시기에 맞춰 축제일정 조정에 나섰다.

당초 21일로 개최 예정이었던 비단고을 산꽃축제는 축제 개최 일을 일주일 앞당긴 14일로 변경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축제가 앞당겨지면 분주해지기는 했지만, 관광객 맞이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 최대 산벚꽃 자생근락지로 유명한 보곡산골에서 개최되는 비단고을 산꽃축제는 오전 10시 5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산꽃 슬래김 건강걷기대회, 숲속 작은 음악회, 산꽃 포크송 콘서트, 화전놀이, 화덕음식체험 등 공연과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된다.

보곡산골은 산벚꽃을 비롯해 조팝나무, 산딸나무, 병꽃나무, 생강나무, 야생화 등이 사계절 꽃을 피우는데 무궁해 청정지역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한편, 진분홍의 매력을 자랑하는 전국 유일의 홍도화축제는 남일면에서 일정 변동 없이 21일에 개최된다.

금산=주연기 기자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공주시 지역민 통행불편 해소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중 주민 이용이 많고 활용도가 높고 확포장이 시급한 노선을 우선 선정 연차적인 도로 확장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계속 추진 사업으로 월송도로 0.76km, 마암도로 1.62km, 운곡도로 0.70km, 광명도로 0.25km, 평성도로 0.36km 등 5개 노선에 대한 확장사업을 금년 말 완료 목표라고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인 하대도로 0.35km, 대성도로 0.25km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중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상비 지급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도로가 좁아 차량통행 및 농기계운반에 불편을 겪던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철 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의 철저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사기간동안 시민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해빙기 월동해충구제 위한 일제방역소독 전개

공주시, 감염병 예방 위한 방역취약지역 방역·유충구제 실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최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월동해충의 활동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해빙기 월동위생해충과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보건소 내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읍·면·동 이·통장단을 중심으로 방역취약지역 정화조, 하수구, 다세대 주택 지하실, 공중화장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해 월동해충 및 모기 유충구제 작업을 펼치고 있다.

공주=정성범 기자

교육은 소방, 가스, 전기, 교통,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사례 및 체험, 인문학 및 생활상식 등으로 진행되고, 일반 교육은 보령문화의전당, 체험은 천안에 위치한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진행한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은 "생활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법, 사고 체험, 일반상식 등 안전 분야의 총체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 기자

보령시 시민안전문화대학 참가자 20일까지 모집

안전문화 및 재난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안전의식 강화

보령시는 복잡·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문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민안전문화대학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변화와 안전의식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안전문화 및 재난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하반기는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일 2시간씩 운영하며, 모두 4차시, 8시간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안전분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시민 등 40명으로, 읍면동사무소 비치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aepo28@korakul 또는 팩스(041-930-3949), 읍면동사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architectural photos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like 'BEST PLAN, 대표. 박정호' and 'FAX. 042. 624. 1204'.

오늘의 하이라이트

▲ 역류 (MBC 오전 7시55분)



“선화 앞세워서 뭘 하려는 거예요?” 강준희(서도영)에게 추락 당시의 상황을 묻는 김인영(신다운)의 모습이 그려지며 눈길을 모았다.

▲ 파도야 파도야 (KBS2 오전 9시00분)

정훈(장재 환)은 창식(선우재덕)의 데릴사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기전(반효정)과 육분

(이정진)의 반대에 부딪힌다. 애심(박선영)은 순영(서하) 새 출발하기로 결심하고 정태(정현)는 도피 행각을 벌인다.

▲ 해피시스터즈 (SBS 오전 8시30분)



진섭은 심부름센터에 화영의 뿔조사를 지시하고 마원장을 찾아가 화영과의 관계를 묻는 등 화영에 대한 반격을 준비한다.

케이블 영화

▲ 고지전 (OCN 오후 5시20분)

영화 <고지전>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시작해 미처 다 기록되지 못한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우리가 몰랐던 한국전쟁의 마지막 전쟁을 조명한다.

1953년 2월, 휴전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교착전이 한창인 동부전선 최전방 애록고지에서 전사한 중대장의 시신에서 아군의 총알이 발견된다.

애록고지로 향한 은표는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친구 ‘김수혁’(고수)을 만나게 된다. 유약한 학생이었던 ‘수혁’은 2년 사이에 이등병에서 중위로 특진해 악어중대의 실질적 리더가 되어 있고, 그가 함께 하는 악어중대는 명성과 달리 즐겁고 행복한 군복을 덧입는 모습을 보이고 갓 스무살이 된 어린 청년이 대위로 부대를 이끄는 등 뿔가 미심쩍다.

살아 돌아온 친구, 의심스러운 악어중대.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은표는 오직 병사들의 목숨으로만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격전지 애록고지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데...



▲ 미션임파서블3 (채널CGV 오후 1시00분)

전세계가 기다린 그가 돌아왔다! 최첨단 정보기관 IMF의 특수 비밀 요원 '이단 헌트(폴 크루즈)'. 최고의 베테랑 특수 요원으로서 항상 긴장감 속에 경계를 늦추지 않던 그는 이제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나 특수 요원 트레이닝에 전념하며 삶의 여유를 찾고, 사랑하는 여인 '줄리아(미셸 모나한)'와 행복한 결혼을 꿈꾼다.

하지만 그녀와의 약혼식 날, 급작스런 분부의 호출을 받은 이단 헌트에게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국제 암거래상 '오웬 데이비언(윌리엄 세이모어 호프만)'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IMF 요원을 구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차마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최고의 IMF팀을 이끌고 작전에 임하는 이단 헌트는 요원을 구출하는 데에 극적으로 성공하지만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는다.

IMF 본부의 국장(로벤스 피시번)은 작전에 실패한 이단 헌트를 심하게 문책하고 그는 자신과 상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오웬'을 추적한다. 이번에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첩첩 같은 보안으로 결코 침투 불가능한 비터칸의 심장부.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서산시, 마라톤대회 막바지 준비 '총력'

도로 시설물 정비 등 선수안전사고예방주력



서산시가 오는 8일 개최되는 '제17회 서산마라톤대회'의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산지역 특산품인 돌부기 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고 있는 서산마라톤대회는 5천명 넘는 동호인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자리 잡았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시즌 첫 비타민 스쿨

한층 더 지역에 녹아들기 위해 연100회 지역공헌활동 선언



아산 시민과 함께 노랑색 파란(波瀾)을 일으켜 승격에 도전하는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박승관)은 창단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여 한층 더 지역에 녹아들기 위해 연100회의 지역공헌활동을 선언, 그 첫 번째로 지난 3일, 금성초를 방문했다.

이날 비타민 스쿨은 총 26명의 3, 4학년 학생들과 고무열, 이명주, 주세종, 황인범의 참여로 진행됐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한이 많았던 학생들은 다행히도 한껏 좋아진 공기 속에서 기분 좋게 비타민 스쿨에 입학수 있었다.

선수들은 슈팅, 패스 등 축구자의 기본기를 가르쳐주며 학생들과의 스킵을 통해 한결금 가까워졌다. 이후 선수들은 화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적극적으로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미니게임에 임하며 학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nsemble WITH가 그리는 재즈와 오페라 음악의 콜라보>

양상블 위드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14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양상블 위드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14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Ensemble WITH가 그리는 재즈와 오페라 음악의 화려한 콜라보>라는 표제를 갖은 이 공연은 재즈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 장르를 넘나드는 클래식 전문연주단체 '앙상블위드'의 활기찬 행보를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앙상블위드는 오페라에 대한 기초 지식과 즐거움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즐거운 감상을 할 수 있는 오페라극단을 다양한 편성의 기악들로 구성된 실내악과 성악과 기악으로 구성된 편성으로 연주하며, 관객들이 그 음악 자체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재즈 요소를 클래식 작곡기법과 접목시킨 곡들을 프로그램화해 오페라음악과 재즈의 콜라보를 통해 대조되는 두 장르의 특징적인 절제와 즉흥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레파토리로 다양한 표현력과 깊이 있는 '앙상블 위드'만의 음악세계를 통해 관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획의 폭을 넓혀주고자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단체 멤버의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생 은여인 교수, 드러머 양영철과 베이스 기타리스트 성철모를 각각 스페셜 게스트와 게스트로 모시고 함께 연주하며, 폭넓은 세대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한데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대전지역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록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으로 5일 부터 인터파크, 나무에술기획 (042-477-8220)에서 예매 가능하다. 공연은 8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송병배 기자

케이블 & 위성방송

영화·오락

- OCN: 4:30 타이탄, 6:20 사랑하기 때문에, 8:20 CSI: 시즌4, 12:20 작은 신의 아이들, 15:20 현충선-엔터스 위, 17:30 고지전, 20:10 빅터 프랑켄슈타인, 22:30 주먹이 튀다

채널 CGV

- 2:40 생화협, 5:00 반지연 임파서블, 8:20 로빈훅, 10:50 스텔라, 13:00 미션 임파서블 3, 15:20 인디애나 존스 4-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17:40 액터, 20:10 고스트버스터즈, 22:30 저스트 라이크 헤븐

Mnet

- 5: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7, 7:10 morning, 8:1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8, 9:40 M COUNTDOWN, 11:20 고등패퍼 2 HOT CLIP, 11:5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8, 13:2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20 고등패퍼 2, 15:5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8, 17:20 Daily Music Talk (SMS), 18:00 M COUNTDOWN, 19:30 Live on M (SMS), 20:00 SVT 클럽, 21:00 고등패퍼 2, 22:30 고등패퍼 2 HOT CLIP, 23:10 M COUNTDOWN

스포츠·레저

- MBC 스포츠플러스: 10:00 2018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12:00 본격리얼 양구예능 7전 8구, 13:00 <MBC SPORTS+특선> 2002 한일월드컵, 15:00 2018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17:00 베이스볼 투나잇, 18:00 베이스볼 NOW, 18:30 2018 신한은행 MYCAR KBO리그

SBS 스포츠

- 9:00 17-18 도드람 V리그 남자부 챔피언 결정전, 11:30 2017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3:00 2018 베이스볼S, 14:10 2018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15:10 17-18 도드람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17:10 2018 베이스볼S, 18:20 2018 KBO리그, 22:00 2018 베이스볼S

온스타일

- 5:20 버디 액츄얼리, 6:30 갯이뷰티 2018, 7:40 퀴나잇 무드클럽-빅뱅메이스트, 9:40 달팽이 호텔, 10:50 달팽이 호텔, 12:10 갯이뷰티 2018, 14:40 마음에 들어, 15:00 마이박스, 15:20 뜨거운 사이다, 16:20 갯이뷰티 2018, 17:10 갯이뷰티 2018, 18:20 토크쇼, 19:40 토크쇼, 20:50 마음에 들어, 21:20 갯이뷰티 2018

뉴스·다큐

-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이슈, 14:00 후준선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물의 시사탐방, 20:15 YTN 24, 21:00 YTN 국민신문고

한국경제TV

-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중시830, 10:00 증시리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리인 13, 15:40 부자리인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장, 19:00 보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정의주식 사구팔구, 21:00 대박 천국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 10:00 건강한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아프리카의 맹수> 대형 고양이과동물들의 사냥, 13:15 킹덤2, 14:15 유럽최후의 황무지, 15:15 아시아현역, 16:15 TV 동물농장, 18:30 <세계 테마 기행> 신들의 바다 정령, 팔라우K2-3부/4부, 20:00 <빅 캣 워크 2018> 라이온 프라이드-2부, 21:00 킹덤2, 22:00 유럽의 야생 군도, 23:00 체인오브 커맨드

음악·애니

- MBC 뮤직: 7:10 지붕높고 하이킥, 8:10 음악앨범, 9:10 주간아이돌, 10:10 전지적 참견: 점, 11:50 가자가지 튜텐, 12:30 Show Champion, 14:00 주간아이돌, 15:00 순위의재구성, 16:00 라디오스타

애니맥스

-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타겟매치 W 시즌9, 9:00 꼬마버스 타요4, 10: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2, 11:00 레인보우 루비, 12:00 몬스터 vs 에일리언, 13:00 마음의 소리, 14:00 안녕! 괴물기발, 15:00 아들은 너무 이상해, 16:00 타오르자마버스터, 17:00 포켓몬스터 섀문, 1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터

JET 지능방송

- 6:00 유희왕,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파워캐치원더par2, 9:00 파워구주대 시즌2, 10:00 변신자동차 뚝뚝 12기, 11:00 출동! 슈퍼왕스, 12:00 세서미 스트리트-엘머더 뮤지컬, 13:00 치령차림 시크릿 쥬쥬 11기, 14:00 포켓몬스터 XY, 15:00 12영웅전사, 16:00 농지마정신줄, 17:00 애슬론 투팓



**공주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캠퍼스 벚꽃의 향연** 공주대 캠퍼스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벚꽃의 향연으로 만개한 벚꽃향기 아래에서 학생들이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 학생과 시민들은 대학 캠퍼스 곳곳에 활짝 핀 벚꽃과 목련꽃, 개나리꽃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교정을 활보하는 등 야안꽃비가 내리는 봄맞이 꽃놀이 정취를 더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개최**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일 오후 대전효문화진흥원 대강당에서 각급 학교장 307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권한대행 한국현)는 4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2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내 산책로 및 본관 주변의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풍요로운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추진했다.



**(在)아산 강원도민회,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펼쳐** (在)아산강원도민회(회장 김명옥) 회원 30명은 지난 1일, 아산시 곡교천과 은행나무길 주변에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등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한국중부발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봄 김장 나눔**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규)은 4일 보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나눔의 실천을 위한 봄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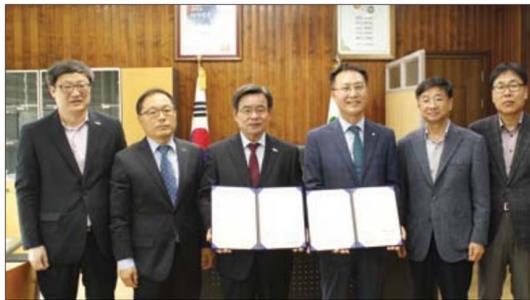
**신원식 LX대전충남본부장, 당진지사 현장 격려방문** 신원식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4일 당진지사 지적측량 현장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봄철 안전사고 유의와 고객만족 서비스제공에 대해 당부했다.

서천건설본부, 서천 대표 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활성화 위해

**한산모시문화제 후원 업무협약 시행**

서천건설본부(본부장 김광일)는 4월 4일(수) 서천군수실에서 서천군 대표 축제인 「한산모시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산모시문화제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천건설본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또한 그 일환으로 서천군 대표축제인 「한산모시문화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작년에 개최 비용(5천만원) 지원에 이어 향후 5년간 「한산모시문화제」 개최에 총 2억 5천만원의 후원을 약속했다.



김광일 본부장은 "지역의 대표 공기기업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한산모시문화제」를 비롯하여 지역의 동백꽃·주꾸미 축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건설본부는 올해에도 동백꽃·주꾸미 축제 등 서천지역 4대축제 및 서천여교 세팍타코팀 훈련비 지원, 무주택자를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 3·4호점 건설」을 시행할 예정이며, 문화·교육·복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혜자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행복발전소 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서천=이정복기자



백석대학교 ·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인증제 인증서 수여식’ 개최**

백석대학교(총장 정종현) · 백석문화대학교는 4월 3일 교내 본부동 국제회의실에서 ‘백석인증제 제22기 수여식 및 제23기 입단식’을 개최했다.

백석인증제는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가 개발한 인성인증과정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재학생들에게 월드비전, 기아대책,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기독교실업인회, 대한애수교장로회총회, 포스코인재창조원 등이 공동으로 인성을 인증하는 과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93명의 제22기 재학생들이 인증서를 수여 받았고, 200여 명의 제23기 재학생들이 선서와 함께 앞으로의 교육에 성실히

이탈 것을 다짐했다. 인증서를 받는 학생들은 총 15주간 백석인증교육원 수업을 수강하고, 방학 3주간 교육, 훈련, 실천 과정을 이수하고 백석캠프에 참석해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나서는데 등 '21세기 글로벌 인성 리더'로서의 역량을 개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원로회, 월드비전 세 단체에서 22년간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초정해 인성교육 등으로 물질양면 섬겨온 백석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종현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천안=이종호기자



건강보험공단, 부여군 초촌면서 의료봉사활동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충남 부여군 초촌면 사무소에서 초촌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충남대학교 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대전지생한방병원과 공단 본부, 대전지역본부와 부여청양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주민 200여 명에게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한방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오늘은 예방의학 박사이기도 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협압과 비만 관리 등 건강상담을

실시했으며, 어르신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는 의원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버스 2대를 동원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촌면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고 싶어도 이동이 어려웠던 진료를 받아 볼 수 없었던 차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진료를 한번에 받아 볼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송병배기자

**‘2018 아미의 작가들’ 의봄 전시**

아미 미술관, 화사함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당진 아미 미술관에서 지난 1일부터 6월 27일까지 '2018 아미의 작가들'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는 매년 아미 미술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로서, 올해에는 구이진, 윤정미, 이예희의 작품 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봄'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화사한 분홍색 혹은 핑크,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각각 다른 목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이진은 옛이야기나 신화, 동화의 모티브를 소재로 한 작업을 통해 개개인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인류 원형의 영역에 접근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윤정미는 아이의 성별에 따라 분홍과 파랑으로 구별되는 색깔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핑크 & 블루 프로

젝트 시리즈(1~3)'를 통해 풀어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에 걸쳐 축적된 풍부한 결과물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예희는 감자 썬, 인간, 빌딩 숲을 이루는 도시 등의 소재를 핑크로 개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위를 향해 성장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과 어두운 욕망, 희생 등을 내포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김순미 작가의 특별 초대전도 마련되어 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개개인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얼굴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운곡면 건강증진실, 주민 건강지킴이**

주민들의 건강생활습관 실천 확산 위해 건강증진실 새롭게 단장



청양군 운곡면(면장 조용근)이 주민들의 건강생활습관 실천 확산을 위해 운동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등 건강증진실을 새롭게 단장했다. 운곡면사무소 다목적회관 1층에 위치한 건강증진실은 145.26㎡ 규모에 안마의자와 헬스사이클, 벨트 마사지 등 8종의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다.

주민과 공유입을 제외한 연중오 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연간 2000여 명이 자유롭게 오가며 운동 편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체력 증진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운곡면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500만 원을 들여 러닝머신 2대를 추가로 보강했다.

청양=정상범기자

호서대 김경식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스포츠과학부 김경식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최신판에 등재된다고 4일 밝혔다.

김경식 교수는 스포츠과학 연구방법론을 집필하여 스포츠과학자들의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후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소셜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과거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미지의 연구 영역들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키워드, 저자동시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제 스포츠사회학, 여가학 등 스포츠과학 하위분야의 지적 구조를 규명하고 지식 지도를 그려내는 연구뿐만 아니라, 구조와 행위의 이중성을 밝혀내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올해만도 Management Decision 등 SSCI 국제사회과학저널에 2편의 논문이 게재 확정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국내외 저널에 총 1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에너지 스마트 홈'

사업 추진 업무협약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 지역본부(4일 (사)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코어테크놀로지스와 '에너지 스마트 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스마트 홈' 사업은 주택의 분전반에 전력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에너지 IoT(사물인터넷) 장비의 설치를 지원해 세대원의 휴대폰을 통해 전기사용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프로그램, 전기절약컨설팅, 절전우수가구 포상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에너지 IoT 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사업추진 성과 우수사례를 관내 지자체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 참여가구 발굴 및 에너지 컨설팅, 참여 우수가구 선정·포상 등을 추진한다.

송병배기자

**알림**  
▲ 충청지역 MCA 협의회, 6·13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5일(목)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 앞.



### 데스크 칼럼

## 대전권 대학들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최근 대전지역 대학들이 그야말로 ‘피 말리는’ 내날을 보냈다. 2주 기 대학교조개혁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평가 대상 대학 중 상위 60%에 들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전권 대학들도 봉착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까지 1단계 평가를 위한 대학별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60%의 대학만 살아남는다. 반면 하위 40%의 대학은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 그중에서도 하위 20%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그래서 대학들은 제출시한 마지막 날인 당일까지 평가항목의 유·불리 분석과 함께 감점요인이 없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A대학 관계자는 “매일 매일 야근하다보니 집에서 밥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몇달 동안 주말없는 서류와의 싸움에 몸과 마음을 지질대로 지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B대학 관계자는 “대학 교직원

이 되고 나서 항상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며 “소숫집 차이로 대학의 명운이 걸리는 숫자들 앞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속마음을 털어냈다. 이번 보고서 제출에 이어 4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표에 따른 정량적 수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생 충원을 등 단순 정량 수치가 수도권 대학들 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대학들의 부담은 더 크다. 대다수 대학은 야근과 주말근무로 인한 고단함보다 평가결과가 낮아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컸다. 무엇보다 피하고 싶은 것은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는 국립대보다 상당히 평가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 등록금이 의존해야 하는 사립대는 교원·교사 확보와 시간강사 보수 수준 등 여러 항목에서 국립대와 차이를 보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5년 1주기 평가는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별 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 등급별로 정원 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4년제 기준으로 A등급은 자율 감축,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학가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통계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엔 치러지는 2020학년 대학 입시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대입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는 사태는 2년 뒤인 2021학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1학년 대입에서는 대입정원이

고졸자 수를 9만 명이나 초과한다. 정원미달이 계속될 경우 재정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대학 줄도산’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 교육통계에 따르면 내년과 내후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현 고2·고1 학생 수는 각각 52만2374명, 45만993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대입정원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55만5041명(2019학년 기준)이다. 2021학년 대입에서는 고졸자보다 대입정원이 9만 5106명 많다. 연평균 재수생이 10만명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고졸자 대학진학률이 70%를 밑돌고 있어 대입정원은 10만명 이상 남아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거나 군입대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고졸자 대학진학률은 2015년 70.8%를 기록한 이래 2016·2017년 각각 69.8%, 68.9%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는 지방 대학에 직격탄이다. 이데일리가 종로학원하늘교육과 공동으로 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학년 대입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한 13곳은 대입정원이 지역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위기는 대학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 대학교수들의 실직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재단이 취약해 등록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구조이다. 문제는 대부분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률이 하락세를 거듭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

미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204개교 중 80%에 해당하는 163개교가 이미 신입생 총인 미달 사태를 겪었다. 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비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 27.2%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은 2005년 82.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68.9%로 떨어졌다. 대학교수들 입장에서 ‘교육 소비자들’인 대입수험생의 감소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고, 마침내 2020년에는 중대한 분수령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일선 대학교수들은 신입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계기로 삼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수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내실을 강화하자는 논리인 것이다.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수도권과 더불어 그동안 신입생 모집이 수월했던 대전권 대학들도 이제 대외도산이 남의 얘기로 치부될 문제가 아닌 듯 싶다. 특히 사립대학들의 위기는 국립대보다 상당히 심하다. 부조건 뒷집난 만 지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환상속에 빠져서는 사립대학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몇 달 있으면 당장 대학기본역량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어느 대학은 평가 상위 60%에 속하는 대학이 있을 것이고 어느 대학은 40% 평가 하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평가에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다. 이제 구조개혁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가에도 어느덧 봄이 왔다. 하지만 마음만은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이유는 뭘까?

## 사설

### 생활물가 잡아야 한다

물들이 최저임금인상을 계기로 시작된 외식 서비스 가격 인상에 하반기에는 공공서비스 가격 역시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기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등 유통채널별 가격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도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우선 백화점의 경우 소비경기에 가장 민감하다. 물가 인상에 따라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의 소비 포기나 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다. 백화점 핵심 고객층인 최고 소득층의 소비 변화는 없었지만 중산층의 소비는 백화점보다는 합리적 소비가 가능한 채널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백화점은 내국인 소비보다는 가격민감도가 낮은 중국인 관광객 회복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형마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해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이다. 외식 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가정식 수요를 확대해 대형마트의 식품부문 수요를 개선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인건비가 수요 증가를 영입이므로 이어지는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홈쇼핑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을 다루고 있어 백화점 보다는 견조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다. 편의점 역시 1~2인 가구의 식품 수요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물가인상에도 수요는 견조해 보인다. 하지만 물가인상보다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질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물가의 상승은 서민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 공직자 재산 신고,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건가

앞으로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는 모양이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초 재산등록 때 부동산가격 기준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이 신고기준이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신고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 같은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개정안은 언뜻 보면 실가 신고를 유도하는 진일보한 제도로 이해될 법도 하다. 하지만 속살을 한 꺼풀 열어보면 여태껏 공직자 재산신고가 그랬듯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지금도 변동신고 때 공시가와 실가 중 높은 금액을 적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이번 제도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비견한 예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올 3월 재산변동 신고를 했지만 보유

아파트(도곡동 도곡렉스 60㎡) 가격을 6억 원도 채 안 되게 써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원을 넘었으니 김 부총리의 강남아파트 신고액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다. 이런 엉터리 신고가 어디 한 둘이겠는가. 문제의 뿌리는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 보호조항’에 있다. “팔지 않는 한 정확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인사처의 해명은 소가 웃을 일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신고 시점의 인근 시세에 일정한 가감을 하면 될 일이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하위 신고액을 적출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 국민 세금 부과 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직자 재산신고는 빠져나갈 구멍을 방치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굳이 이런 제도가 아니라도 공직자 스스로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공복의 도리이자 책무다.

### 건강 칼럼

## 2018년 달라진 국가건강검진 꼼꼼히 살펴야 할 항목은



김어전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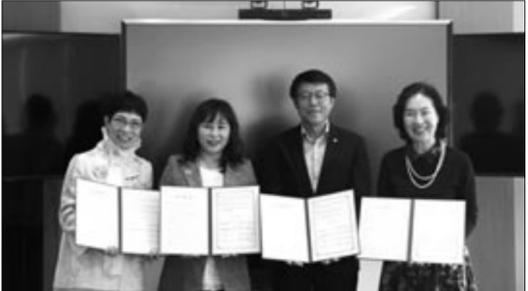
중장년층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를 토대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각종 수치로 표시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정확히 보는 게 도움이 된다. 특히 2018년은 국가건강검진의 일반 건강검진이 대폭 변경돼 검진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달라진 건강검진 내용과 검진결과지에 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에 대해 알아본다. 제일 앞장에 있는 ‘건강검진 종합소견’ 부분에는 종합적인 소견이 표시돼 있다. ‘정상A’, ‘정상B’, ‘일부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확진검사 대상자)’, ‘유지사항’로 분류돼 있고 본인의 소

견에 V표시로 체크된다.(중복체크 가능) 두 번째 장에는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각 검사 항목들이 표시돼 있다. 각 항목에 자신의 검사결과와 정상치가 적혀 있고, 본인이 어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표시돼 있다. 고혈압 검사인 혈압검사의 정상수치는 수축기혈압(위 혈압)이 120mmHg 미만, 이완기혈압(아랫 혈압)이 80mmHg 미만이다. 수축기혈압 또는 이완기혈압이 둘 중 하나라도 120mmHg 또는 80mmHg 이상이라면 고혈압 진단에 해당된다. 고혈압 기준은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으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확진 검사(혈압 측정)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확진 검사 항목인 공복혈당당뇨병 검사는 100mg/dL 미만이면 정상수치이며, 100부터는 당뇨병 진단을 위한 공복혈당장애에 속한다. 126mg/dL부터는 당뇨병이 의심되므로 역시 의사 진료 및 확진 검사(공복혈당 측정)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차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후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 유소견이 나오면 2차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1회에 한해 확진 검사를 받고 약 처방을 등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검사는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저밀도(LDL) 콜레스테롤로 이뤄져 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의 정상은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 중성지방이 150mg/dL,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이 130mg/dL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고밀도(HDL) 콜레스테롤은 60mg/dL 이상이어야 한다. 총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40mg/dL 미만부터는 ‘의심 질환’ 소견으로 이상지질혈증의 관리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2018년부터 4년에 한번으로 검사 간격이 늘었기 때문에, 이상소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받아야 하겠다. 반면 인지기능장애(치매선별) 문진은 만 66세 이상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주기가 확대됐으며, 만 66세에게만 실시하던 노인신체기능검사(보행, 평형)가 만 66, 70, 80세에게도 실시되는 등 전체적으로 검진 받는 나이가 확대됐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항목은 세 번째 장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위

험평가’이다. 심뇌혈관질환이란 뇌졸중, 심근경색을 포괄하는 질환을 뜻한다. 우리나라 사망률 순위 중에서 압도적으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들인 만큼 이번엔 새로 바뀐 국가건강검진의 일반건강검진에서도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체중과 허리둘레, 신체활동, 음주, 혈압, 흡연, 공복혈당, 콜레스테롤을 정하고, 건강신호등으로 현재 상태를 표시해 ‘주의’ 또는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권하고 있다. 또한 이런 위험 요인들을 종합해 나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같은 성별, 연령 표준에 비해 몇 배에 해당하는지,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심뇌혈관 나이’가 몇 세 인지 표시해 자신의 혈관질환 위험 수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건강 위험 요인들을 조절하면 개선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의 변화, 심뇌혈관 나이의 변화도 표시해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검진결과에서 나온 건강위험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검진결과표를 자세히 살피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놀이 지원사업 ‘놀이투게더’ 업무협약 실시



한화케미칼(주) 중앙연구소는 4일 오전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이상욱 소장, 대전백운초등학교 이영주 교장, 대전중앙초등학교 백승수 교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박미에 본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놀이 지원사업 ‘놀이투게더’ 업무협약식을 실시했다. ‘놀이투게더’는 대전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 비중이 사교육비, 공부시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해 가장 높기 때문에, 전통놀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 및 인성을 발달시켜 건강한

육 소장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과 회사의 사회공헌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한다.”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중앙초등학교 백승수 교장은 “놀이는 아이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학교 차원에서 놀이 지원이 학교에서 맡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놀이투게더는 아이들의 놀이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백운초등학교 이영주 교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놀 거리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라며 “놀이교육을 통한 감사, 행복, 즐거움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이들이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박미에 본부장은 “초등학생들에게 놀이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더불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아이들의 놀이에 도움을 준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병대 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강로하스축제 시내버스 타고가요”

7·8일 테마형 시내버스 ‘77번’ 노선 신설 한시적 운행 대전광역시 금강로하스축제 기간인 4월 7일과 8일 신탄진네거리에서 대청담까지 운행하는 테마형 시내버스인 ‘77번’ 노선을 신설해 한시

지 20분 간격으로 총 26차례 운행된다. 77번 노선은 기존 시내버스와 환승이 가능한 테마형 노선으로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해 환승하면 축제가 열리는 대청담 광장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테마노선 운영으로 축제기간 동안

외지 방문객과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해 지역축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예술, 교육, 관광 등의 분야도 활용할 수 있는 특색노선을 개발해 잠재된 이용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8년 5월 17일 창간  
 짧은생각·비즈니스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이제는 전광판 시대**  
**광고문의는 대전투데이로**

**광고문의 : 042-538-3030**